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1, 187-203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에 미치는 영향*

이 경 선 조 용 래†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선행연구들은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사회불안 또는 사회공포증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을 예측하는데 있어 사회적 염려차원의 유용성과 특정성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발표과제 전후로 그들의 불안수준을 다양한 반응양상별로 측정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은, 다른 하위 차원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발표 직전과 직후에 각각 한국판 BAI로 측정된 불안수준, 자신의 불안을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는 것에 대한 부담정도, 예상 불안, 수행 기대, 그리고 발표 끝날 무렵의 불안수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사회적 염려차원과 발표불안반응 간의 관계에서 불안탐지에 대한 부담정도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들은 사회불안/공포증 (특히 발표불안)이 있는 내담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불안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불안민감성, 사회적 염려차원, 발표불안, 사회공포증, 불안탐지에 대한 부담정도

---

* 이 연구의 일부 내용은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2004년도 World Congress of Behavioral and Cognitive Therapies (WCBCT)의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조 용 래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번지
FAX : 033-256-3424 / E-mail : yrcho@hallym.ac.kr

불안민감성(anxiety sensitivity)은 불안장애에 대한 이론, 연구 및 임상 실제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불안민감성이란 불안관련 감각에 대한 공포를 말하며, 그러한 감각들이 끔찍한 신체적, 심리적 또는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Reiss, 1987, 1991; Reiss & McNally, 1985). Reiss 등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불안민감성은 공포와 불안반응을 증폭시키는 개인차변인이며, 불안장애의 발생에 기여하는 취약성 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불안민감성의 하위 차원과 관련하여,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검사도구들인 원판 불안민감성 지표(Anxiety Sensitivity Inventory, ASI)와 개정판 불안민감성 지표(Anxiety Sensitivity Inventory-Revised, ASI-R)의 요인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불안민감성 척도의 요인구조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상당한 논쟁이 있어 왔다(예: 조용래, 2003; Taylor & Cox, 1998; Deacon, Abramowitz, Woods, & Tolin, 2003).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불안민감성은 세 개 또는 네 개의 1차 요인과 한 개의 2차 요인이 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Lilienfeld, Turner와 Jacob(1993)의 주장이 일관되게 지지를 받고 있다(예: 조용래, 2003; Taylor & Cox, 1998; Zinbarg, Barlow, & Brown, 1997). 불안민감성의 하위 차원은 신체적 염려(physical concerns), 심리적 염려(psychological concerns) 및 사회적 염려(social concerns)라는 3차원, 그리고 신체적 염려가 심폐위장계 감각과 혈관미주신경계 감각, 또는 심혈관위장계 증상과 호흡계 증상으로 나누어지는 4차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하위 차원들 중 특히 사회적 염려 차원은 남들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불안감각(예: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창피나 무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불안 또는 사회공포증의 핵심적 인지특징으로 간주되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민감성과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의 관계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먼저, Taylor(1995)는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이 불안민감성의 영역보다 부정적 평가 민감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Zinbarg, Mohlman과 Hong(1999)에 따르면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은 개념적으로 부정적 평가 민감성과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은 공적으로 관찰 가능한 불안증상의 발현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염려를 말하는 반면에, 부정적 평가 민감성은 불안 증상 발현에만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행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라고 하였다.

최근 들어,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이 불안민감성의 영역 또는 부정적 평가 민감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아주 잘 개념화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McWilliams, Stewart와 MacPherson(2000)은 ASI와 부정적 평가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BFNE; Leary, 1983)을 함께 대학생들에게 실시한 후 수집된 이 두 검사의 자료들에 대해 한꺼번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은 부정적 평가 민감성 요인이나 불안민감성의 다른 두 가지 하위 요인들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요인을 구성하였다. 이와 함께, 이차 요인분석을 한 결과, 이 네 가지 요인들은 단일한 상위요인인 위협민감성(threat

sensitivity)에 높게 부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불안민감성의 각 세 가지 하위척도들은 부정적 평가 민감성과 거의 비슷한 크기의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놀랍게도 불안민감성의 다른 하위척도들에 비해 사회적 염려 하위척도의 점수는 부정적 평가 민감성 점수와 더 강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들은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이 불안민감성 전체와 부정적 평가 민감성 양자 모두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개념임과 동시에 불안민감성과 부정적 평가 민감성의 혼합물을 일부 포함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라는 개념은 사회불안이나 사회공포증과 이론적으로 관련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점을 시사하는 몇몇 경험적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Zinbarg 등(1997)은 불안민감성 지표 등 여러 불안측정도구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사회적 불안에 대한 다른 측정치들과 함께 사회불안요인에 가장 높게 부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Orsillo, Lilienfeld와 Heimberg(1994)는 사회공포증 환자들의 불안민감성과 특질불안이 상호작용하여 두 가지 사회적 도전절차에 대한 불안반응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Norton, Cox, Hewitt와 McLeod(1997)에 따르면, 불안민감성은 다른 성격변인들에 비해 사회적인 수행상황(예: 발표)에서의 불안 정도를 더 많이 설명하였다. 하지만 뒤의 두 연구들은 불안민감성의 어떠한 하위 차원이 사회불안과 높게 관련되는 지를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은 사회불안이나 사회공포증의 취약성변인으로서 그러한 불안의 발생이나 유지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이 사회불안/사회공포증에 기여하는 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사회불안/사회공포증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서나 임상 실제에서 매우 의미있는 과제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들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발표불안의 발생이나 유지과정에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이 중요하게 기여하는 지를 알아보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후 발표과제 수행 전과 후에 다각적으로 측정된 그들의 불안수준을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이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대학생의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에서 사회적 염려차원이 고유하게 기여하는 지를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위차원들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색해 보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협사건의 발생확률(likelihood)에 대한 과대추정과 그런 사건의 부담(cost)에 대한 과대평가는 불안장애의 주된 인지적 편파이며, 사회적 위협사건에 대한 두 가지 인지적 편파 중 특히 과장된 부담 추정이 사회불안/공포증의 주된 특징이라는 견해(Foa, Franklin, & Kozak, 2001; Foa & Kozak, 1986; Rapee, 1997;

Uren, Szabo, & Lovibond, 2004)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반화된 사회공포증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전에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의 발생확률과 부담정도에 대한 인지적 편파를 보였으며, 이 두 가지 편파 중 사회적 위협사건에 대한 부담 추정치의 감소가 사회공포증의 인지행동치료 후에 나타난 호전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Foa, Franklin, Perry, & Herbert, 1996; Hofmann, 2004). 이 연구들에서 밝혀졌듯이, 사회불안/공포증의 주요한 두 가지 판단편파 중 특히 사회적 위협에 대한 과장된 부담 추정이 사회불안/공포증의 발생이나 유지 과정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선행 연구들에서 측정된 판단편파는 특질 수준의 구성개념으로 간주되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불안탐지에 대한 부담추정은 발표상황에서 활성화된 상태수준의 구성개념이라는 차이점이 있다(예: Rapee, 199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의 불안탐지에 대한 부담 추정은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과 발표수행 상황에서 야기되는 불안반응 사이의 관계에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된다. 다시 말해, 일종의 심리적 취약성 요인으로 간주되는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이 즉흥적인 발표상황에 의해 활성화됨으로써 불안탐지에 대한 과도한 부담추정이라는 상태수준의 인지변인에 영향을 주고, 이 변인의 매개를 거쳐서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염려차원과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간의 관계에서 불안탐지의 부담추정이 매개역할을 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지방 소재 한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155명의 대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전체 참가자 중 남자는 66명(42.6%)이었고, 여자는 89명(57.4%)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1.88세(SD=2.3)이었다.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은 연구 참가의 대가로 일정수준의 보너스 점수를 받았다.

측정 도구

사전측정 질문지

한국판 Anxiety Sensitivity Index-Revised (ASI-R). 이 검사는 참가자들의 불안민감성 및 그 하위차원들을 측정하기 위해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이 척도는 원래 Reiss, Peterson, Gursky와 McNally(1986)가 불안민감성의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16문항의 ASI(Anxiety Sensitivity Inventory)를 만들었으나, 이 척도가 불안민감성의 중요한 하위차원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Taylor와 Cox(1998)가 36문항으로 구성된 ASI-R을 만들었고, 요인분석 결과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총 36문항 중 1번부터 12번 문항까지는 호흡계 증상에 대한 두려움(호흡계 감각 염려), 13번부터 19번 문항까지는 공적으로 관찰 가능한 반응에 대한 두려움(사회적 염려), 20번부터 30번 문항까지는 심혈관위장계 증상에 대한 두려움(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 그리고 31번부터 36번 문항까지는 인지적 통제

불능에 대한 두려움(심리적 염려)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용래(2003)가 번역한 한국판 ASI-R을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매우 높았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증된 요인타당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표과제 전후의 질문지

한국판 Beck Anxiety Inventory(BAI). 이 검사는 Beck, Epstein, Brown과 Steer(1988)가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 보고형 검사로서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한국판 BAI(조용래, 김은정, 2004)를 지시문만 연구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한 후, 각 참가자 개인별로 발표 직전 및 발표 직후에 2번 측정하였다.

불안을 청중들이 알아차릴 가능성 및 그 결과에 대한 부담 정도. 발표 동안 본인이 불안해한다는 것을 청중들이 알아차릴 가능성과, 실제로 그럴 경우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것 같은지를 각각 0점(전혀 ... 않다) - 100점(대단히 ... 하다) 사이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예상 불안. 발표 동안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의 불안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발표 직전에 0점(전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 100점(대단히 불안할 것이다) 사이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수행기대와 실제수행. 수행기대는 발표 직전에 자신이 발표를 얼마나 잘 할 것 같은지, 그리고 실제수행은 발표 직후에 자신의 전반적인 수행수준이 얼마나 된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지를 각각 0점(전혀 ... 않다) - 100점(대단히 ... 하다) 사이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최고 불안과 끝 불안. 발표를 하는 동안 경험한 최고의 불안수준과 발표 끝날 무렵의 불안수준을 각각 측정하기 위하여, 발표가 끝난 직후에 해당 질문에 대하여 각각 0점(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 100점(대단히 불안했다) 사이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연구 절차

심리학 관련 과목의 수업시간에 연구자가 직접 들어가서, 본 연구의 취지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제 전 질문지를 실시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실험약속을 잡았다. 피험자들이 약속 시간에 도착하면, 간단하게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 발표과제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피험자로 하여금 5가지 주제(낙태, 안전벨트 착용 법규, 건강보험, 학교에서의 체벌, 사형제도; Hofmann & DiBartolo, 2000)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한 후, 3분 동안 발표를 위한 준비시간을 주었다. 발표에 들어가기 직전에 몇 가지 자기 보고형 검사문항들을 완성하게 하였다. 그 다음, 비디오카메라 및 일방투시경 뒤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 5분 동안 발표를 하게 하였다. 발표 직후 몇 가지 자기 보고형 검사반응들을 완성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목적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준 후 연구가 끝날 때까지 실험에 관한 비밀 준수를 부탁하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 관심있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먼저,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각 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각 척도들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불안민감성의 하위차원들 간에는 중등도 이상의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염려차원은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측정치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호흡계 감각 염려차원은 수행기대 및 수행수준, 심혈관 위장계 감각 염려차원은 최고 불안, 끝 불안, 수행기대 및 수행수준, 그리고 심리적 염려차원은 수행수준과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각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AS	1.00													
2. AS_RES	.85**	1.00												
3. AS_CAR	.88**	.69**	1.00											
4. AS_SOC	.72**	.47**	.48**	1.00										
5. AS_MEN	.73**	.46**	.62**	.44**	1.00									
6. 발표전BAI	.49**	.38**	.39**	.38**	.39**	1.00								
7. 발표후BAI	.45**	.33**	.33**	.39**	.36**	.88**	1.00							
8. 관찰가능성	.27**	.22**	.19*	.19*	.19*	.49**	.45**	1.00						
9. 부담정도	.48**	.35**	.39**	.39**	.34**	.49**	.52**	.46**	1.00					
10. 불안 예상	.34**	.26**	.20*	.37**	.22**	.54**	.50**	.60**	.48**	1.00				
11. 수행기대	-.20*	-.11	-.14	-.25**	-.20*	-.50**	-.49**	-.49**	-.32**	-.30**	1.00			
12. 끝 불안	.26*	.22**	.12	.27**	.22**	.45**	.49**	.34**	.41**	.38**	-.28**	1.00		
13. 최고 불안	.27**	.21**	.15	.24**	.22**	.53**	.61**	.46**	.43**	.54**	-.36**	.74**	1.00	
14. 수행수준	-.16*	-.10	-.11	-.17*	-.15	-.44**	-.50**	-.34**	-.27**	-.23**	.68**	-.38**	-.43**	1.00
N	149	153	153	153	155	153	155	155	155	155	155	155	155	155
M	32.79	7.83	6.59	10.13	4.59	11.78	13.99	63.03	39.68	65.68	45.48	47.29	67.87	40.13
SD	20.73	6.85	6.66	5.54	4.17	9.25	10.99	18.39	24.37	18.38	19.11	27.24	21.71	19.80

주. AS = 불안민감성; AS_RES = 호흡계 감각염려; AS_CAR = 심혈관계 감각 염려 ; AS_SOC = 사회적 염려; AS_MEN = 심리적 염려; BAI = Beck 불안척도.

$^{*}p<.05$, $^{**}p<.01$.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발표과제 전후의 불안반응에 미치는 영향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다른 세 하위차원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발표과제 전후의 다양한 불안수준들을 유의미하게 추가로 설명하는 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불안민감성의 네 하위차원들을 예측변인으로, 그리고 각 불안반응 측정치들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각 종속변인에 대한 예측변인으로서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위차원들을 1 단계로 먼저 투입하였으며, 그 다음 2 단계로 사회적 염려차원을 투입하였다.

각 종속변인별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발표 직전에 한국판 BAI로 측정된 불안수준의 전체 변량 중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차원들이 설명하는 변량은 21.7%이었으며, 이 세 하위차원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적 염려차원이 그 불안수준에 유의미하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β = 20, p<.05; ΔR^2 = .03; 표 2).

다음으로, 발표 직후에 한국판 BAI로 측정된 불안수준의 전체 변량 중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차원들이 설명하는 변량은 17.4%이었으며, 이 세 하위차원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적 염려차원이 그 불안수준에 유의미하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β = .25, p<.01; ΔR^2 = .044; 표 3).

참가자 본인이 불안해하는 것을 남들이 눈

표 2. 발표직전 측정된 BAI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요약

예측변인	*Adj* R^2	R^2	ΔR^2	*F*	*df*	β	*sr*	*t*
불안민감성의 다른 차원들	.20	.22	.22	13.23***	3,143			
호흡계 감각염려						.20	.14	1.88
심혈관 위장계 감각염려						.10	.06	.82
심리적 염려						.26	.20	2.74**
사회적 염려	.23	.25	.03	5.53*	1,142	.20	.17	2.35*

*p<.05, **p<.01, ***p<.001.

표 3. 발표직후 측정된 BAI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요약

예측변인	*Adj* R^2	R^2	ΔR^2	*F*	*df*	β	*sr*	*t*
불안민감성의 다른 차원들	.16	.17	.17	10.16***	3,145			
호흡계 감각염려						.17	.12	1.57
심혈관 위장계 감각염려						.07	.04	.56
심리적 염려						.26	.20	2.71**
사회적 염려	.20	.22	.04	8.02**	1,144	.25	.21	2.83**

**p<.01, ***p<.001.

표 4. 불안탐지의 부담정도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요약

예측변인	*Adj* R^2	R^2	ΔR^2	*F*	*df*	β	*sr*	*t*
불안민감성의 다른 차원들	.17	.19	.19	11.39***	3,145			
호흡계 감각염려						.16	.11	1.49
심혈관 위장계 감각염려						.19	.12	1.65
심리적 염려						.16	.13	1.72
사회적 염려	.21	.23	.04	7.63**	1,144	.24	.20	2.76**

**p<.01, ***p<.001.

표 5. 불안예상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요약

예측변인	*Adj* R^2	R^2	ΔR^2	*F*	*df*	β	*sr*	*t*
불안민감성의 다른 차원들	.07	.09	.09	4.50**	3,145			
호흡계 감각염려						.22	.16	1.99*
심혈관 위장계 감각염려						-.04	-.03	-.33
심리적 염려						.16	.12	1.54
사회적 염려	.14	.16	.08	12.87***	1,144	.33	.27	3.59***

*p<.05, **p<.01, ***p<.001.

치 챌 경우에 대한 부담정도의 전체 변량 중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차원들이 설명하는 변량은 19.1%이었으며, 이 세 하위차원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적 염려차원이 그 불안수준에 유의미하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β = .24, p<.01; ΔR^2 = .04; 표 4).

발표 직전에 측정된 불안예상수준의 전체 변량 중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차원들이 설명하는 변량은 8.5%이었으며, 이 세 하위차원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적 염려차원이 그 불안수준에 유의미하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β= .33, p<.001; ΔR^2 = .08; 표 5).

발표 직전에 측정된 수행기대의 전체 변량 중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차원들이 설명하는 변량은 3.7%였으며, 이 세 하위차원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적 염려차원이 수행기대에 유의미하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β = -.22, p<.05; ΔR^2 = .03; 표 6).

발표가 끝날 무렵 경험한 불안수준의 전체 변량 중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차원들이 설명하는 변량은 7.8%이었으며, 이 세 하위차원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적 염려차원이 그 불안수준에 유의미하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β = .21, p<.05; ΔR^2 = .03; 표 7).

그밖에, 발표 동안의 최고의 불안수준 및 수행수준에 대한 지각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이 다른 차원들의 영향을 넘어서서 추가로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 6. 수행기대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요약

예측변인	*Adj* R^2	R^2	ΔR^2	*F*	*df*	β	*sr*	*t*
불안민감성의 다른 차원들	.02	.040	.040	1.88	3,145			
호흡계 감각염려						.04	.03	.35
심혈관 위장계 감각염려						-.07	-.04	-.51
심리적 염려						-.17	-.13	-1.62
사회적 염려	.05	.07	.03	5.25*	1,144	-.220	-.18	-2.29*

*p<.05

표 7. 발표 끝날 무렵의 불안수준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요약

예측변인	*Adj* R^2	R^2	ΔR^2	*F*	*df*	β	*sr*	*t*
불안민감성의 다른 차원들	.06	.08	.08	4.08**	3,145			
호흡계 감각염려						.21	.15	1.88
심혈관 위장계 감각염려						-.14	-.09	-1.16
심리적 염려						.23	.18	2.25*
사회적 염려	.08	.11	.03	4.82*	1,144	.21	.17	2.20*

*p<.05, **p<.01

사회적 염려차원의 독특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적용한 분석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불안민감성의 다른 하위차원들의 특정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발표상황에 대한 각 불안반응측정치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심리적 염려차원만이 발표 직전(β = .21, p<.05; ΔR^2 = .03) 및 직후(β = .21, p<.05; ΔR^2 = .03)에 각각 한국판 BAI로 측정된 불안수준에 대해 추가로 유의미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다른 종속측정치들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차원의 추가 설명변량도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특히 호흡계 감각 염려차원과 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차원은 발표상황에 대한 어떤 불안반응 측정치들에 대해서도 다른 차원들의 영향을 넘어서서 추가로 유의미하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과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 간의 관계에서 불안탐지에 대한 부담정도의 매개효과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발표상황의 불안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서론에서 설정한 불안탐지에 대한 부담정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일련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적 염려차원은 독립변인, 불안탐지에 대한 부담정도는 잠정적인 매개변인, 그리고 시간적 순서

상 잠정적 매개변인보다 뒤에 측정된 발표 직후의 BAI 수준과 발표 끝날 무렵의 불안수준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일련의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염려차원은 발표 직후의 BAI 수준(β = .39, p<.001; R^2 = .15) 뿐 아니라 불안탐지에 대한 부담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 .39, p<.001; R^2 = .15). 사회적 염려차원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불안탐지의 부담정도는 발표 직후의 BAI수준에 추가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β = .43, p<.001; ΔR^2 = .16). 나아가, 불안탐지의 부담정도가 발표 직후의 BAI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후에 사회적 염려차원의 직접적인 효과는 여전히 유의미하기는 했지만 그 크기가 많이 감소되었다(R^2 = .15에서 R^2 = .04로 감소함). 따라서 이 결과들은 사회적 염려차원이 발표 직후의 BAI수준에 대해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불안탐지의 부담정도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끝 불안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앞과 동일한 일련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염려차원은 끝 불안수준(β = .27, p<.001; R^2 = .07) 뿐 아니라 불안탐지에 대한 부담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β = .39, p<.001; R^2 = .15). 사회적 염려차원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불안탐지의 부담정도는 끝 불안수준에 추가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β = .36, p<.001; ΔR^2 = .11). 나아가, 불안탐지의 부담정도가 끝 불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후에는 사회적 염려차원의 직접적인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2 = .07에서 R^2 = .01로 감소함). 따라서 이 결과들은 사회적 염려차원이 발표 끝 불안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불안탐지의 부담정도에 의해 완전 매개됨을 나타낸다(그림 1).

논 의

본 연구는 아주 흔한 심리적 문제로 알려진 발표불안의 발생과 유지과정에서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일종의 심리적 취약성으로서 원인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색해 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즉흥적인 발표상황에서 야기된 불안수준을 다양한 측정도구로 평가하였으며,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위차원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후 사회적 염려차원이 발표상황에 대한 각 불안반응 측정치들에 추가로 유의미하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연구 결과,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은, 다른 세 하위차원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발표 직전과 직후에 각각 한국판 BAI로 측정된 불안수준, 자신의 불안을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는 것에 대한 부담정도, 불안 예상, 수행 기대, 그리고 발표 끝날 무렵의 불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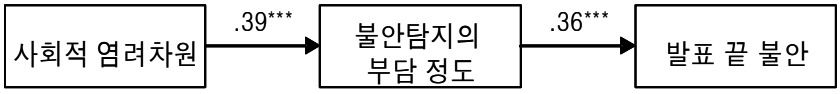

그림 1.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과 발표 끝 불안간의 관계에서 불안탐지의 부담정도의 매개효과.

***p<.001.

준 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수행수준에 대한 자기지각 변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염려차원의 추가적인 설명변량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수행수준의 경우,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 외에 각 개인의 발표능력과 같은 다른 변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능력변인을 사전에 측정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향후 각 개인의 발표능력변인을 추가로 측정하여 통계분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발표 끝 무렵의 불안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염려차원의 추가적인 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 비해, 발표 동안의 최고 불안수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참가자들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발표동안 불안수준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고유한 효과를 보이지 않지만 발표가 끝날 무렵의 불안수준에 대해서는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위차원들의 영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아울러, 발표 직전과 직후에 각각 측정된 한국판 BAI에 대한 불안민감성의 심리적 염려차원의 추가적인 효과가 유의미했던 것을 제외하면, 이 차원은 대부분의 다른 불안반응 측정치들에 대한 추가변량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호흡계 감각 염려차원과 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차원 양자 모두 발표상황에서의 어떤 불안반응 측정치들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추가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불안민감성의 다른 하위차원들과는 구별되게, 대체적으로 사회적 염려 차원이 발표상황의 불안수준에 대해 고유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Norton 등(1997)의 연구에서 불안민감성이 발표와 같은 상황에서 경험된 불안 정도를 다른 성격변인들에 비해 더 많이 설명하였다는 보고와 비견된다. 특히 Norton 등(1997)의 연구에서는 불안민감성의 하위차원들의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지 못했으나, 본 연구는 발표상황의 불안반응에 대해 불안민감성의 다른 차원들 - 일부 불안측정치에 대한 심리적 염려차원의 효과는 제외 - 과는 달리 사회적 염려차원이 대체로 유의미하게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발표상황의 불안수준에 대한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의 추가 설명변량이 대부분의 불안측정치들에서 유의미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불안민감성의 하위차원 중 사회적 염려 차원이 사회적 불안 요인에 높게 부하되었다는 Zinbarg와 Barlow(1996)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된다. 아울러, 발표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적게 하는 사람들에 비해 발표 동안 부정적인 정서와 주관적인 불안을 더 심하게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Hofmann & DiBartolo, 2000)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사회적 염려차원과 발표에 대한 불안반응간의 관계에서 잠정적인 매개변인으로 상정된 불안탐지에 대한 부담정도의 역할을 검증하기 위해, 시간적인 순서 상 불안탐지에 대한 부담정도보다 늦게 측정된 불안반응 측정치들 중에서 사회적 염려차원의 추가 설명변량이 유의미했던 발표 직후의 BAI 수준과 발표 끝날 무렵의 불안수준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다. Baron과 Kenny(1986)가 제

안한 일련의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불안탐지의 부담정도는 사회적 염려차원과 발표 직후의 BAI수준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적 염려차원은 발표 직후의 BAI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불안탐지의 부담정도에 의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불안탐지의 부담정도는 사회적 염려차원과 발표 끝 불안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사회적 염려차원은 발표 끝 불안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오직 불안탐지의 부담정도에 의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이 두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종의 심리적 취약성 요인으로 간주되는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은 즉흥적인 발표상황에 의해 활성화되어 불안탐지에 대한 과도한 부담추정이라는 상태수준의 인지변인의 완전 또는 부분매개로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을 증가시킨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불안탐지의 부담정도의 매개효과가 종속변인에 따라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종속측정치로 사용된 BAI와 발표 끝날 무렵의 불안수준의 성질과 주로 관련이 있어 보인다. BAI에 포함된 문항들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 주관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 등의 2요인구조(예: Beck et al., 1988), 또는 불안의 주관적 증상, 신경생리학적 증상, 자율신경계 증상 및 공황증상이라는 4개의 일차요인과 일반불안증상이라는 1개의 이차요인이 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한은경, 조용래, 박상학, 김학렬, 김상훈, 2003). 이에 비해, 발표 끝날 무렵의 불안수준은 그 시기에 경험했던 불안감의 정도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처럼 측정된 구성개념이 불안의 정서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는지 또는 불안의 인지적 및 생리적 측면도 또한 포함하고 있는 지에 따른 차이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측정된 불안경험 지속시간이 특정 시기 (발표 끝날 무렵)에 제한된 것인지 또는 발표를 하는 5분 동안인지에 따른 차이에 기인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는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측정치들로 자기 보고형 질문지만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에서는 사회불안의 행동평가도구로서 정신생리적 측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Herbert, Rheingold, & Brandsma, 2001; McNeil, Ries, & Turk, 1995). 또한 발표 동안 얼마간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은 반응 등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처럼 불안관련 행동증상 등도 독립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동일한 주제를 연구하고자 할 때, 앞으로는 자기 보고형 질문지뿐만 아니라 정신생리적 측정방법과 제 3자 입장에서 참가자의 행동적 반응양상들을 평정하는 방법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 집단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 성인집단 및 불안장애 등의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위차원의 영향을 넘어서서 사회적 염려차원이 발표상황의 불안반응을 추가로 설명하는 변량은 약 3 ~ 8%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나 그 정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들과 인지이론들을 살펴볼 때,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에는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역기능적 신념(조용래, 2006),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Clark & Wells, 1995), 부정적인 자기지각(Hofmann & DiBartolo, 2000),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에 대한 부담추정(Foa et al., 2001; Foa et al., 1996; Foa & Kozak, 1986), 정서적 회피(Block, 2002)와 같은 다른 성향적 변인들이 추가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향적 변인들이 사회적 염려차원과 독립적으로 발표상황의 불안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론적, 임상적 및 경험적 연구의 측면에서 몇 가지 의의가 있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들은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을 예측하는데 있어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의 유용성과 특정성을 지지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염려 차원이 일종의 심리적 취약성 요인으로서 대학생의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에 원인적 역할을 할 가능성 및 그 작용기제를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임상 실제의 측면에서 볼 때, 대학생의 발표불안의 발생이나 유지과정을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발표불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 차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결과는 발표불안이나 사회공포증에 인지행동치료(예: 조용래, 2001; Heimberg, 1991; Turk, Heimberg, & Hope, 2001)를 적용할 때,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도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발표불안 또는 사회공포증이 있는 내담자들이 그들의 불안 증상들을 사회적 재앙으로 오해석하는 경향과 불안 탐지에 대한 그들의 과도한 부담추정 편파를 인지적 재구성(cognitive restructuring) 기법으로 교정함으로써, 그리고 체내감각에 대한 노출(interoceptive exposure) 기법을 사용하여 공적으로 관찰 가능한 불안 반응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키며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높여줌으로써 그들의 발표불안이나 사회불안 증상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지하듯이, 체내감각에 대한 노출기법은 원래 공황발작이나 공황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Craske & Barlow, 2001). 최근에는 체내감각에 대한 노출과 인지적 오평가에 대한 교정기법으로 구성된 치료를 받은 발표공포증 집단에서 치료 종결 후에 발표불안 및 발표동안에 경험하는 불안관련 신체증상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으며, 2주간의 추후 평가시에도 공포감소효과가 유지된 것으로 밝혀졌다(Plotkin, 2001).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체내감각 노출집단의 경우 자기보고형 검사 및 생리적 지표들로 측정된 공포감소효과는 안내된 심상이완집단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불안민감성의 하위차원들의 차별적 역할을 발표불안에 적용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실제 발표수행 과제를 통해 유발된 불안수준을 여러 시기에 걸쳐서 다양한 반응양상들을 - 비록 자기보고형 질문지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 여러 측정도구들로써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각 변인의 측정과정에서 시간적 우선성을 고려함으로써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발표에 대한 불안반응에 미치는 작용기제를 좀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조용래 (2001). 발표불안에 대한 인지행동집단 치료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399-411.

조용래 (2003). 불안민감성 차원: 한국판 개정된 검사의 요인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7-108.

조용래 (2006). 역기능적 신념과 발표상황의 불안반응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 인쇄중.

조용래, 김은정 (2004). 한국판 불안통제질문지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 503-519.

한은경, 조용래, 박상학, 김학렬, 김상훈 (2003). 한국판 Beck Anxiety Inventory의 요인구조: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261-270.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93-897.

Block, J. (2002). *Acceptance or change of private experiences: A comparative analysis in college students with public speaking anxie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eibowitz, D. A. Hope, & F. R. Schneier(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 treatment*.(pp. 69-73). New York: Guilford Press.

Craske, M. G., & Barlow, D. H. (2001). Panic disorder and agoraphobia. In D. H. Barlow (Ed.), *Clinical handbook of psychological disorders* (pp. 1-59). New York: Guilford Press.

Deacon, B. J., Abramowitz, J. S. Woods, C. M., & Tolin, D. F. (2003). The anxiety sensitivity Index - Revised: Psychometric properties and factor structure in two nonclinical sampl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 1427-1449.

Foa, E. B., Franklin, M. E., & Kozak, M. J. (2001). Social phobia: An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In S. Hofman, & P. M. DiBartolo (Eds.), *From social anxiety to social phobia: Multiple perspectives* (pp. 268-280). Needham, MA: Allyn & Bacon.

Foa, E. B., Franklin, M. E., Perry, K. J., & Herbert, J. D. (1996). Cognitive biases in generalized social phob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433-439.

Foa, E. B., & Kozak, M. J. (1986). Emotional processing of fear: Exposure to corrective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99,* 20-35.

Heimberg, R. G. (1991). *Cognitive behavioral treatment of social phobia in a group setting: A treatment manual (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available from the Center for Stress and Anxiety Disorders, Pine West

Plaza, Bulding 4, Washington Avenue Extension, Albany, N.Y. 12205.

Herbert, J. D., Rheingold, A. A., & Brandsma, L. L. (2001).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and social phobia. In S. G. Hofmann, & P. M. DiBartolo(Eds.), *From social anxiety to social phobia* (pp. 20-45).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Hofmann, S. G. (2004). Cognitive mediation of treatment change in social phobi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05,* 433-439.

Hofmann, S. G., & DiBartolo, P. M. (2000). An instrument assess self-statements during public speaking: Scale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properties. *Behavior Therapy, 31*, 499-515.

Leary, M. (1983).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371-375.

Lilienfeld, S. O., Turner, S. M., & Jacob, R. G. (1993). Anxiety sensitivity: An examination of the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Advances i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5*, 147-183.

McNeil, D. W., Ries, B. J., & Turk, C. L. (1995). Behavioral assessment: Self-report, physiology, and overt behavior.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R.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pp. 202-231). New York: Guilford Press.

McWilliams, L. A., Stewart, S. H., & MacPherson, P. S. R. (2000). Does the social concerns component of the anxiety sensitivity belong to the domain of anxiety sensitivity or the domain of negative evaluation sensitivi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985-992.

Norton, G. R., Cox, B. J., Hewitt, P. L., & McLeod, L. (1997). Personality factors associated with generalized and non-generalized social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2*, 655-660.

Orsillo, S. M., Lilienfeld, S. O., & Heimberg, R. G. (1994). Social phobia and response to challenge procedures: Examining the interaction between anxiety sensitivity and trait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8*, 247-258.

Plotkin, D. P. (2001). *The effects of interoceptive exposure on fear reduction and return of fear in individuals with public speaking anxie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Rapee, R. M. (1997). Perceived threat and perceived control as predictors of the degree of fear in physical and social situation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1,* 455-461.

Reiss, S. (1987). Theoretical perspectives on the fear of anxiety. *Clinical Psychology Review,* 7, 585-596.

Reiss, S. (1991). Expectancy model of fear, anxiety and panic. *Clinical Psychology Review, 11*, 141-155.

Reiss, S., & McNally, R. J. (1985). The expectancy model of fear. In S. Reiss & R. R. Bootzin (Eds.). *Theoretical issues in behavior therapy* (pp. 107-121). New Yo기: Academic Press.

Reiss, S., Peterson, R. A., Gursky, M., & McNally, R. J. (1986). Anxiety, sensitivity, anxiety frequency, and the prediction of fearfulnes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4, 1-8.

Taylor, S. (1995). Anxiety sensitivity: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recent finding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 243-258.

Taylor, S., & Cox, B. J. (1998). An expanded anxiety sensitivity index: Evidence for a Hierarchic structure in a clinical samp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5), 463-483.

Turk, C. L., Heimberg, R. G., & Hope, D. A. (2001). Social anxiety disorder. In D. H. Barlow (Eds.), *Clinical handbook of psychological disorders* (pp. 114-153). New York: Guilford Press

Uren, T. H., Szabo, M., & Lovibond, P. F. (2004). Probability and cost estimates for social and physical outcomes in social phobia and panic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8*, 481-498.

Zinbarg, R. E., & Barlow, D. H. (1996). Structure of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 A hierarchical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181-193.

Zinbarg, R. E., Barlow, D. H., & Brown, T. A. (1997). Hierarchical structure and general factor saturation of the Anxiety Sensitivity Index: Evidence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Assessment*, 9, 277-284.

Zinbarg, R. E., Mohlman, J., & Hong, N. N. (1999). Dimensions of anxiety sensitivity. In S. Taylor (Eds.), *Anxiety sensitivity: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the fear of anxiety* (pp. 83-113). Mahwah, NJ: Erlbaum.

원고접수일 : 2005. 10. 10.
게재결정일 : 2005. 12. 28.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1, 187-203

The effect of the social concerns dimension of anxiety sensitivity on anxious responding to a public speaking task

Kyungsun Lee Yongrae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Some earlier studies indicated that social concerns dimension of anxiety sensitivity(AS) would be involved in social anxiety or social phobia.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utility and specificity of AS-social concerns in predicting anxious response to a public speaking task. Anxious responding that 155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d before and during an impromptu public speaking was measured with several self-report assessment tools. The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S-social concerns dimension significantly predicted modified versions of the Beck Anxiety Inventory prior to and following a public speaking, cost estimate for anxiety appearance, anxiety expectation, performance expectation, and ending anxiety during a public speaking after controlling for the effects of the other dimensions of AS, whereas the other dimensions of AS mostly did not. The effect of AS-social concerns dimension on anxious responses to a public speaking task was mediated through cost estimate for anxiety appeara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importance of AS-social concerns dimension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understand clients with social anxiety/phobia(particularly public speaking anxiety) more systematically and treat them more effectively.

Keywords : anxiety sensitivity, social concerns, public speaking anxiety, social anxiety disorder, cost estimate for anxiety appearance